

「문명 이기(利器)」 소중히 다루고 이해해야 발전

희 망찬 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및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을 간과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우리 농업·농촌의 투명한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은 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

람이 오래 다니게 되면 없었던 길도 새로 생기는 것처럼 희망도 여러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궁하면 통한다 하여 궁즉통(窮即通)이라 했습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은 더 가까이 와 있는 법입니다. 선달그믐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원단(元旦)의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비록 1990년대 후반이후부터 친환경농업이 만능인 양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만, 농약은 여전히 농업인에게는 천군이요 만마의 힘이며, 그 어떤 농업자재보다도 우수한 일당백의 일꾼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농업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해를 거듭해도 진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요와 포식 시대의 농업은 오불관연(吾不關焉)인양 그 중요성

를 간과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우리 농업·농촌의 투명한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은 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

람이 오래 다니게 되면 없었던 길도 새로 생기는 것처럼 희망도 여러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궁하면 통한다 하여 궁즉통(窮即通)이라 했습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은 더 가까이 와 있는 법입니다. 선달그믐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원단(元旦)의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비록 1990년대 후반이후부터 친환경농업이 만능인 양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만, 농약은 여전히 농업인에게는 천군이요 만마의 힘이며, 그 어떤 농업자재보다도 우수한 일당백의 일꾼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우수한 일꾼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잘 다루고 관리하는 일이 어느 특정분야만의 몫이어서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모두가 관리

자이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때 문명 이기의 생명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만이 도심지 소비자는 물론 언론, 소비자 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노릇들이며 최상의 방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을 둘러싼 환경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가치를 폄하하는 여하한 잘못된 관행이나 부적절한 유통행위는 스스로 고치고 자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및 농업인 여러분!

저희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창립 33주년을 맞은 지난해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작물보호제로서의 농약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작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를 담아 협회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도 여론 주도층인 방송작가 및 각종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안전성 알리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과학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각종 교양강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농산물 구입시 막연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도심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식전환 및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약과 먹거리 책자를 제작, 보급하여 농약의 유익성 및 안전성을 홍보함으로써 근거 없이 농약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도심지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올바른 사용법 계도를 위한 전국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등록업무의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농약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 증진 및 정보수집 제공 등 제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농약혼용정보 책자를 더욱 확대, 보급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은 물론 사용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원사 여러분은 물론 유관 기관 및 언론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산(多産) 동물의 상징이며 복성과 재물의 운이 따른다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 모두가 하나 되며 더욱 풍요롭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됨으로써 희망의 소리가 농업분야에 메아리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7. 1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엄 병 만

